

간협, 간호사를 위한 감성터치 특강

옛 그림 감상하기

그림에 숨겨진 코드 찾아내 사람의 마음 읽는 즐거움

옛 그림, 영화, 클래식 음악과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에 흠뻑 빠지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들을 위한 감성터치 프로그램으로 '옛 그림에 담긴 사람의 마음'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옛 그림에 담긴 사람의 마음' 특강은 손철주 미술평론가가 진행했다. 그는 "예술작품 속에는 작가의 꿈과 희망, 동경과 바람,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녹아 있다"면서 "옛 그림을 감상하는 첫걸음은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떤 화법과 어법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옛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은 옛 사람들의 수수께끼에 동참해 숨겨진 코드를 들여다 보고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옛 그림을 이해하고 해독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관점을 소개했다.

첫째, 옛 그림은 걸 다르고 속 다르다.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마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숨어 있는 코드를 읽어내는 것, 즉 음을 같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한자를 유추해내는 것이 포인트다.

예로 고양이(70세 노인), 나비(80세 노인), 바위(장수), 패랭이꽃(축하), 제비꽃(뜻대로 되다)을 그린 김홍도의 '황묘농경'은 70세를 넘어 80세가

지 장수하길 기원하며 만사형통 뜻대로 이루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상백의 '수탉과 암탉'은 눈에 보이는 평온한 풍경을 넘어서 큰 공을 세우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닭이 상징하는 다섯 가지 덕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둘째, 옛 그림에서는 예뻐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다.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 연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 등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예뻐서 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는 대로 보인다. 그림에 숨겨진 속뜻과 함께 걸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해석되는 그림도 있다. 심시경의 '봉접귀비'는 길쭉으로 보면 양귀비꽃에 날아드는 벌과 나비 그 모습대로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으로 읽힌다. 또한 속뜻에 담긴 다산(양귀비꽃), 장수(나비), 높은 지위(벌)로도 읽힌다.

던 데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왕에게 들려주기 위해 바치는 음악이 아닌 인간의 오만가지 감정을 표현해내는 음악을 하고 싶었던 베토벤은 나(음악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낭만주의 음악시대가 열리게 됐다"면서 "청각장애였다는 스토리텔링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베토벤의 위대함을 영화를 통해 재발견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곤 대표는 "음악영화를 통해 클래식 거장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즐거움을 느껴보라"면서 "더불어 지금 나는 간호사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타인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키워주고 그들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규숙·오세정 기자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마음으로 배우는 공부 통해 예술과 인생을 향유하라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 특강은 김이곤 유클래식 대표가 진행했다.

김이곤 대표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서 "영화를 보는 것,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가는 것, 여행을 하는 것 등은 모두 새로운 공부와 발견의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역사적 사실에 영화적 허구와 상상력을 결합한 장르인 '팩션 영화'에 흥미를 가져보라"면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궁금증을 갖고 마음으로 하는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새로운 눈이 뜨이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는 즐거움을 느끼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클래식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모차르트), '불멸의 연인'(베토벤), '파가니니', '쇼팽의 연인', '귀여운 여인'(베르디), '클라라'(슈만과 클라라), '샤벨과 스트라빈스키' 등을 소개하며 클래식과 인문학으로의 매력적인 여행을 이끌었다.

김이곤 대표는 "위대한 예술가들은 위대한 의문(왜 그런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았다"면서 "음악이 왜 왕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일반인들이 듣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

대구시간호사회 임상연구논문 및 사례연구 발표회

대구시간호사회(회장 박현숙)는 제14회 간호학술논문 및 사례연구 발표회를 11월 9일 개최했다.

회원들의 임상연구논문 5편과 사례연구 5편이 발표됐다.

올해부터 더 많은 회원과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를 함께 접수받아 발표했다.

최우수상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탐이 발표한 '인결합제 복용 교육 프로그램이 고인산혈증을 동반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 인 관련 지식, 복약이행 및 생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가 선정됐다.

박현숙 회장은 "발표회가 회원 개인은 물론 간호전문직 발전의 계



기가 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시간호사회 회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늘푸른장학금(3명), 간호학 박사과정 중인 회원에 대해 1명)이 전달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정신간호사회, 보건복지부 차관 초청 간담회 참석

정신간호사회(회장 박경덕)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초청 정신건강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 주최로 10월 26일 열렸다. 정신보건 관련 20개 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신건강 관련 현황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정신간호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



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인건 근무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도 어젠다로 제시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전북간호사회 회원 논문발표 학술대회

전북간호사회(회장 신화자)가 2017년 학술대회를 11월 2일 개최했다.

임상간호 연구논문 4편을 전북대병원 김성희, 원광대병원 이한나, 예수병원 서향란, 군산의료원 정진영 간호사가 발표했다. 박수경 황등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학생 보건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자에게는 격려금이 지원됐다.

이날 '북한의 보건 의료와 보건일꾼' 주제로 이해경 탐복약사가 특



강을 했다.

신화자 회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연구논문을 완성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간호 각 분야에서 임상연구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사 윌데이 행사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2017년 제2차 간호사 윌데이(With Day) 행사를 10월 26일 용인 한택식물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9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요구를 반영해 1차(5월 17일)에 비해 참석인원을 10명 늘렸다.

한택식물원을 관람하며 가을 정취를 느끼고,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경기도간호사회 복지위원회



이준미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윌데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병원간호사회 간호문화·복지세미나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회원 복지증진과 문화적 감성 향상을 위한 '간호문화·복지세미나'로 창작뮤지컬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공연을 11월 7일 세브란스병원 명명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320여명의 간호사들이 관람했다.

뮤지컬은 '몬스터'로 불리는 심장내과중환자실 7년차 간호사 맹수지가 말라버린 눈물과 심장을 되찾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의 삶과 돌봄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문화기획 캠퍼트리팀에서 공연



했다. 공연을 관람한 간호사들은 "뮤지컬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삶과 현재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감동과 웃음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강원도간호사회 회원 건기대회

강원도간호사회(회장 손혜숙)가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회원 건기대회를 11월 4일 개최했다. 간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횡성호의 절경을 감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간호사들 모두 4.5km 거리의 횡성별



둘레길을 완주했다. '화성의 여터' 전시관을 관람했다.

손혜숙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이 어우러진 횡성호의 절경을 감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간호사들 모두 4.5km 거리의 횡성별

최수정 기자 sjchoi@

부산시간호사회, 간호대학(과)장 간담회 개최

부산시간호사회(회장 이영은)는 간호대학(과)장 간담회를 10월 25일 개최했다. 부산지역 13개 간호대학 학(과)장이 참석했으며, 부산시간호사회 이영은 회장과 기획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계 및 간호교육의 현안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간



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경기도 수원시간호사회 간호사 힐링나들이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수원시간호사회(회장 박미미)는 '간호사 힐링나들이' 행사를 10월 24일 개최했다. 회원 80여명이 참가해 충남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과 지중해마을을 방문했으며, 다양한 민속마을 체험활동을 했다.

간호사들은 "바쁜 일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돼 행복했다"고 말했다. 박미미 회장은 "현장에서 늘 수고하는 간호사들이 일터를 벗어나 편안하게 쉬는 시간



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획으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7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일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최신 동영상 강의 서비스 중 노성신 교수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강 및 동영상 강의 진행